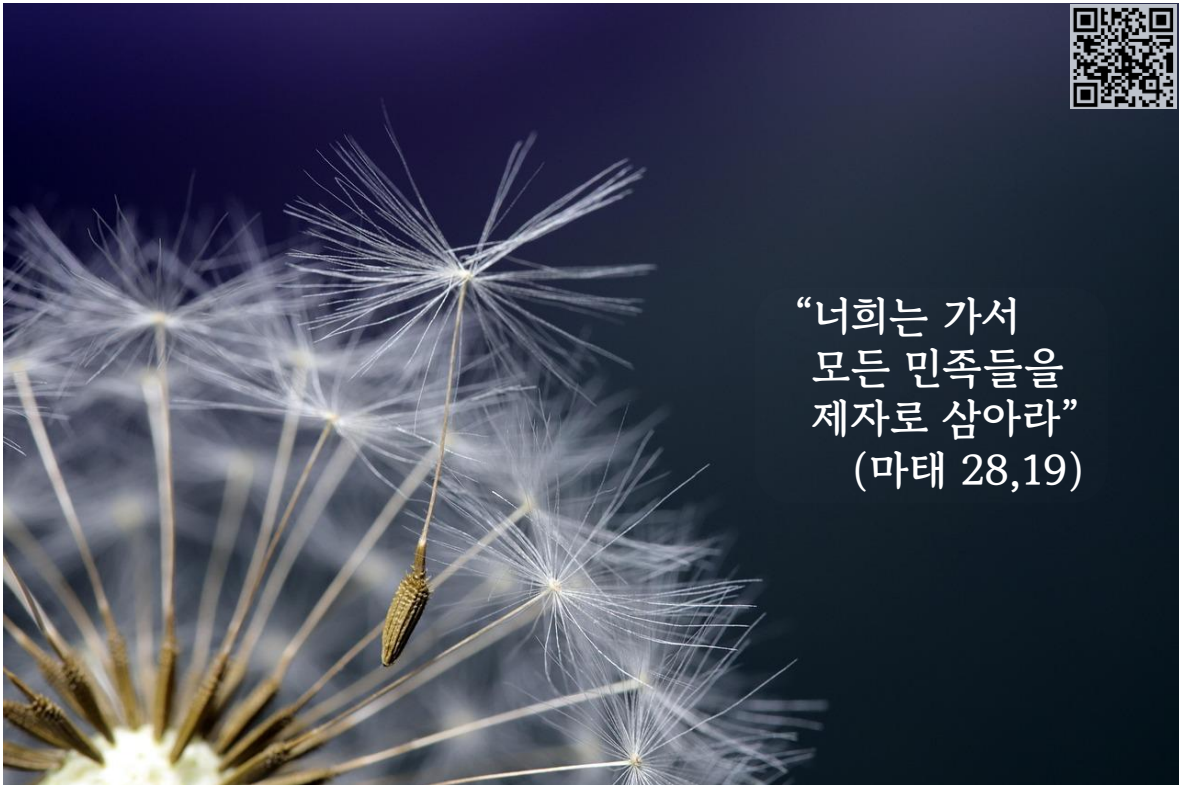


아케엠주보

연중 제 29 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전교 주일)

Association of Korean Catholic Communities of the Middle East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마태 28,19)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 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 장 우종관 대건 안드레아 (+971 50 940 7275)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무실 +971 2 446 1929

주 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바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루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웨이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타르 목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연중 제29주일(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 주일)

오늘은 연중 제29주일이며 전교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선교 사명을 깨닫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 제1독서

이사 2,1-5

• 입당송 시편 67(66),2-3 참조

• 화답송 시편 98(97),1,2-3ㄱㄴ,3ㄷㄹ-4,5-6(◎ 2 참조)

-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2독서

로마 10,9-18

• 복음환호송 마태 28,19.20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 알렐루야.)

• 복음

마태 28,16-20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깊이 깨닫고 그 신비에 온전히 참여하며, 민족들의 복음화에 힘쓰게 하소서.
2.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굽어살피시어, 모든 일은 사랑의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을 앞세우기보다 깊이 생각하고 올바르게 판단 하도록 도와 주소서.
3. 장애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살피 주시고 이들에게 군심의 은총을 주시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서로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마음을 모으게 하소서.
4. 아캠 전담 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목자이신 주님, 당신의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 아캠의 목자로 세우신 김성인 미카엘 사제를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복돋아 주소서.

• 영성체송

마태 28,20 참조

[세계교회] 교황 첫 권고 「딜렉시 테(Dilexi Te,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발표



교황 레오 14세의 첫 권고 「딜렉시 테(Dilexi Te,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탈리아 번역본(좌)과 권고문 발표에 맞춰 전 세계 주교들에게 보내신 교황의 서한(우)

레오 14세 교황의 첫 권고 「딜렉시 테(Dilexi Te,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가 10월 9일 공개됐다. 제목은 요한 묵시록 3장 9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에서 따왔다.

라틴어 ‘Dilexi Te’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회칙 「딜렉시트 노스(Dilexit Nos,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와 짝을 이룬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 문헌을 통해 **“가난한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인식하라”**는 복음의 요청을 새롭게 제시한다. 권고 서문에서는 “이 문헌이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돕는 길이 되길 바란다”고 썼다.

이 권고는 총 5장에 걸쳐 ‘사랑·연속성·일치’를 핵심 주제로 삼는다.

교황은 “주님에 대한 사랑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라고 밝히며, 가난을 단지 물질적 결핍이 아닌 인간 존엄의 문제 그리고 신앙의 자리로 해석했다. 또한 “성경이 이토록 명확히 가난을 말하는데도 왜 여전히 무시당하는가”라고 묻고, **“가난한 이를 외면한다면 복음을 잃게 된다”**고 경고한다.

“오늘날 자선을 가볍게 여기거나 비웃는 이들이 많지만, 자선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우리를 멈춰 세워 가난한 이의 눈을 바라보게 하는 행위”라며, “그 안에서 신앙의 경건함이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했다. **자선과 사랑의 실천은 ‘개인적 구제’가 아니라 ‘교회 정체성의 일부’**임도 분명히 했다.

교황은 이어 가난을 복합적 현실로 설명하며, 물질적 빈곤뿐 아니라 사회적 소외, 문화적 결핍, 인간의 자유 상실 등 다양한 형태를 지적했다. 그는 **“가난한 이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심과 구조적 죄의 결과”**라며, 교회가 이들을 위해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운동이 아닌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응답**이라고 밝혔다.

권고 말미에서 교황은 “교회의 거룩함은 가난한 이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신자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동일한 자비의 행로”로 초대받았음을 상기시켰다. 이에 **“오늘날 복음을 새롭게 읽을 때,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썼다.

문헌 발표와 함께 교황은 전 세계 주교들에게 서한을 보내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작한 전통을 이어, 교도권의 중요한 순간마다 전 주교단이 함께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딜렉시 테」가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아캠] 전담 사제 공동체 사목 방문 일정

- ▶ 방 문 : 카이로(이집트) 공동체
- ▶ 기 간 : 10월 22일(수) ~ 10월 25일(토)



[아부다비] 세례 · 견진 예식



- ▶ 일 시 : 10월 18일 (토), 12시
- ▶ 장 소 : 성 요셉 주교좌 성당
- ▶ 대 상 자 : 윤채은 레지나

※ 복되고 뜻깊은 날을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도 받은 소중한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캠] 10월 '묵주 기도 성월' 온라인 기도 모임

묵주 기도 성월 10월을 맞이하여 10월 1일 ~ 31일 한 달간 '두바이 공동체' 주체로 온라인 기도 모임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캠의 모든 교우들께 열려 있는 기회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하느님과 마음으로 더욱 연결되며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체험 가득한 풍요로운 묵주 기도 성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 ▶ 기 간 : 10월 1일 ~ 31일 매일 20시(UAE 기준)
- ▶ 방 법 : 아캠 공용 줌 접속 (회의 ID: 895 0419 9583 / 암호: 1004)

[교종 레오 14세] 10월 기도 지향

10월: 다양한 종교 전통 간의 협력

다양한 종교 전통을 따르는 이들이 평화와 정의와 인간의 형제애를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카타르 공동체>: 주보 성인 축일 맞이 바자회 행사



10월 10일 (금) 4:00 pm

<아부다비 공동체>: 본당 크리스마스 바자회 기금 마련 아.나.바.다. 장터



10월 11일 (토) 1:00 pm

<두바이 공동체>: 하반기 공동체 전체 식사 모임



10월 12일 (주일) 5:00 pm



2025 메주고리11세 순례... 그 마지막 밤 이야기 ②

이동호 도미니코 :

순례 간다고 낱자를 정하고 난 다음, 집사람이 구석을 한참 뒤지더니 조그마한 라디오를 꺼냈다. SONY라고 쓰여 있었다. '이게 뭐야?' 물으니, 장모님이 삼십여 년 전 메주고리에 순례 때 가져오셨던 라디오였다. 돌아가시기 전에 집사람에게 주셨다 했다. 장모님이 가셨던 길을 집사람과 제가 따라간다는 기대가 생겼다.

십자가 산이 굉장히 힘들었다. 나의 장모님, 남희자 카타리나 자매도 이 길을 오르내리셨겠구나!! 이 똑같은 길을 오르내리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분명 장모님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겠지. 장모님도 이 길에서 자식들을 생각하셨겠다. 내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았겠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받은 사랑을 우리도 아이들에게 돌려줘야지! 이번 순례는 부모님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드린 소중한 시간이었다.

정혜옥 아녜스 :

어려울 때 항상 성모님과 주님께 의탁했던 것이 생각났다. 어려울 때 위로와 돌보심을 마음껏 받았다고 항상 느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면 그냥 그런 일상으로 돌아왔다. 이곳에서 저의 신앙을 돌아봤다. 오후 다섯 시부터 여덟시까지, 묵주기도도 드리고 미사도 드렸다. 그러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 맑은 하늘에서 성모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것 같았다. 그 은혜 주심에 굉장히 감사했다.

은총을 새삼 깨닫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성모님께, "아! 예수님 낳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했다. 성모님 통해서 예수님께 조금 더 다가가는 예쁜 자녀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박용주 바오로 :

3년째 성지순례를 계속 온다. 같이 순례했던 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좋았다. 함께 다시 순례한다는 게 반가웠다. 신부님도 카이로 공동체를 여러 번 사목 방문하셨기 때문에 덜 낯설어 마음이 편했다. 그동안의 순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몹시 기대되었다. 메주고리예에 좋은 감정도 갖고 있었기에 더 기대했었다.

메주고리예는 오는 과정이 굉장히 피곤했다. 잠을 거의 못 자고 힘든 상태였다. 도착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며 성당-즉, 야고보 성당-을 찾아왔다. 다들 뒤흔벌 아래 앉아 묵주기도를 하더라.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들으며, 여기 왜 이러고 있나 싶더라. 전혀 (기도할) 마음의 준비도 안되더라.

오후 5시 15분, 20분쯤 되니 성모님이 오셨다고 막 종소리가 울리는데,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다. 지금 사이비 종교, 이단에 와 앉아 있나 싶을 정도였다. 신앙의 위기구나! 나름 카이로에서 3년 이상 아침 미사도 안 빠지고 다니며 열심히 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한순간 마음에, '이게 이단인가' 싶은 마음이 드니, 내 스스로 너무 놀랐다.

첫날을 지내며 마음이 확 식어 있는데, 둘째 날 목격자 생가, 성모 발현산을 갔다. 그때는 정말 정말 잘못 왔구나 싶었다. 너무 싫었다. 성모님을 봤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전혀 성스럽지 않고, 조잡하고, 성상 주변 정리도 잘 되어 있지 않았다. 사람들이 감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난 안 그런데 왜들 저럴까? (이들이) 사탄에 썬 것도 아닐 텐데... 힘들었다.

저녁에 야고보 성당에서 성체조배한다고 집사람이 가자 했다. 안 간다고 했다. "이거는 내가 믿는 종교가 아닌 것 같아. 가서 앉아 있기도 싫고... 혼자 다녀와." 집사람이 혼자 갈 것처럼 나서다 "그래도 한 번 가자." 했다. 호텔에 혼자 있는 것도 뭐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싫기도 해서 따라나섰다. 집사람은 성체조배하는데, 나는 뒤에서 왔다 갔다 담배도 피우고, 심심하면 자리에 돌아와 앉았다가 했다. 순례자의 자세가 아니었다. 나름 공동체 회장인데 싶으니 공동체 식구들에게 미안했다. 부끄러웠지만 불신의 마음도 변하지 않았다. (속이 상해) 뒤에 앉아 막 기도드렸다. 카이로 성모님, 내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성모님께 기도드렸다. 카이로에 계신 성모님이 너무 보고 싶었다. "성모님, 여긴 너무 적응이 안 됩니다. 낯설고 낯설기만 합니다. 남들은 다 (폭 빠져) 옆어져 있는데 저는 안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니, 카이로 성모님이 꼭 "앉아 있어라." 하시는 듯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앉아 있었다. 마음이 좀 편해져 돌아왔다.

마지막 날이다. 어제쯤 되니, 처음 마음이 거의 없어졌구나 느꼈다. 자연스레 기도하고 성체 조배? 현시?도 했다. 예전에는 성지순례도 다니고 여행도 다녔다. 새로운 것을 보고, 처음 가는 데가 좋았었다. 하지만 이제 안다. 더 좋은 게 있더라. 매일 똑같은 메주고리예. 오전 미사 드리고, 근처에 갔다 와서는, 저녁 미사와 묵주기도를 드린다. 그 반복되는 일상이 좋았다. 새로운 걸 보는 것보다 더 좋은 점점 더 익숙해지는 것, 그저께보다 어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지는- 경험을 하였다.

오늘 성모님 발현산에 또 다녀왔다. 처음에는 불순했고, 감흥이 없었고, 부담스러워했었다. 오늘은 성모님을 뵈고 내려오는데, 헤어지는 게 아쉬워 눈물이 나더라. "몰라봐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직 저희 어머니가 계시니까, 돌아가신 어머니라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더 이상 어머니를 못 뵈겠구나 싶으니, 눈물이 났다. 집사람은 제가 우니 더 크게 울었다. 생소를 했다. 두 번째로 뵈고 오니 성모님과 화해가 되었다. 제 오해도 풀렸고 다음에 다시 오고 싶다. 마음이 편하고 뿌듯해졌다. 솔직히



여기 좀 더 있고 싶다. 시간이 허락되면 더 기도하고 싶다. 제가 달라질 거라 확신한다. 일정이 끝나버려 아쉽다. 아마 계속 있다 보면 성인이 될 것 같기도 하다. 성인이 돼버리면 정말 못 돌아갈 듯하다.

신부님과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너무 큰 반전을 겪다 보니, 메주교리에가 제게 정말 특별한 곳이 되었다. 제 의도와 상관없이 치유를 경험했구나 싶다. 여러 명이 함께 경험했지만, 묵상 중에 진한 꽃향기를 맡기도 했다. 당시 누가 향수 뿌렸나 하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다. 카이로에 돌아가도 자꾸 그리움 생각날 것 같다. 순례를 이끌어준 알버트 형제, 고맙다.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자.

김혜숙 리드비나 :

마지막 날인 오늘 성모 발현지를 가고 싶었다. 남편이 안 가겠다 하길래 혼자라도 가겠다 했더니 따라 나서더라. 내려오는 길에 너무 많이 눈물이 나더라. (바오로는)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고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시 오고 그랬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내려 오는데, 바오로가 “성모님, 죽어서 뵈어요. 제가 죽으면 가서 뵈게요.” 하더라. 정말 그렇겠구나 싶었다. 메주교리에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준 곳이다. 성모님께 너무 감사했다. 누가 큰절했다고 들은 적 있는데, 사람들이 보든 말든 우리도 큰절을 하고 내려왔다.

잔뜩 기대했던 남편이 첫날에 많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마음이 심란했다. 차츰 남편은 변화되었다. 산을 내려오면서, 남편의 변화가 성모님의 전구와 보살핌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싶었다. 남편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구나 느꼈다.

메주교리에는 15년 전부터 가장 오고 싶었던 순례지였다. 그 때부터 계속 기도했다. 희한하게도, 이번 순례를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나도 기억 못하던 작은 죄까지도 자꾸 자꾸 회개하게 되었다. 어려서 엄마 주머니에서 꺼낸 10원, 50원까지 생각해 내어 회개하고 싶었다. 근데 성사 볼 용기는 없고 마음 속에만 쌓여 갔다.

순례 지향으로 ‘성모님을 꼭 만나보고 싶다’를 품고 왔다. 과감하게 품고 온 지향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러나 문 글라라 자매가 느꼈다는, ‘성모님의 현존-내 바로 옆에 성모님이 계시는구나!’의 느낌은 받을 수 있었다. 남편과도 이야기했지만, 카이로나 여기나 성모님은 다 똑같은데, 나는 왜 거기서 느끼지 못하는 성모님의 현존을 메주교리에서 느끼나! 잘 모르겠다. 이번 순례에서 나는 성모님의 현존을 느끼고 회개를 많이 했다. 희년의 순례였기에 전대사도 청하고,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양도할 전대사로 잘 봉헌했고 감사했다. 모든 것이 감사였다. 아픈 자매들을 보면서 감사가 나오더라. 치유의 성모님이 자매들도 잘 보살피시리라 믿는다.

남명애 올리비아 :

이사를 하고 8월 말에 한국으로 이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복잡한 상황이 생기면서 9월의 첫째 주, 둘째 주 하며 날

짜가 미뤄졌다. 두바이 5년, 아부다비 5년, 잠깐 프랑스 갔다, 다시 두바이 5년을 살았다. 그래서 두 공동체를 모두 안다. 친한 자매들이 계속 성지순례 가자고 말했다. 가고 싶었지만,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다. 마음을 접었다.

한국 가는 날짜가 자꾸 미뤄지자 어느 날 가야겠다는 마음이 딱 들었다. 자매들이 했던 말들이 마음에 쌓였고, 짝꿍 모니카 자매의 말도 마음을 흔들었다. 성모님이 많은 자매들을 통해 날 부르시나 싶었다. 솔직히 신자라 해도,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미사 많이 드린 것이 처음이다. 해야 하니까 한다 수준인 기도였다. 간절히 바라는 게 있을 때만 기도했고, 아니면 형식적으로 기도했다. 여기서 온전히 기도할 시간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서 자신도 돌아보고, 주위 사람들도 돌아보고, 기도가 끝도 없이 계속 나왔다. 누군가를 위해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꼬리를 물고 기도해 주고 싶은 누군가, 기도해 줄 어떤 일이 생겼다. 이미 제 기도의 일부를 들어주셨다.

이번에 자매들한테 느낀 게 많다. 이렇게 신앙생활하셨구나.

참 부끄럽다. 자매들이 글라라 자매, 나중에는 로사 자매를 위해, 치유의 기도하겠다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더라. 가서 치유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또 그 옆의 묵주기도도 하는 걸 보며, 기적은 이 마음들이 모여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했다. 마음 마음들이 아름답고 감사했다.

이런 걸 체험하라고 한국에 못 가게 성모님이 잡으셨나 싶기도 했다. 신앙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많이 성장했다. 기도, 특히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평소 저 자신, 제가 아는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었다. 이제는 더 폭을 넓혀야겠다. (통역 가이드) 테아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그 외 세상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한국 가서도 열심히 기도하겠다. 감사합니다.



차연경 모니카 :

순례를 잘 준비 하고 싶었다. 성모님 관련 교리 유튜브도 봤다. 어렵더라. 또 ‘메주교리에서 기적, 발현이 있었다, 지금도 매일 나오신다,’는 이야기가 믿기 어려웠다. 성모님의 기적 같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삶의 모범’, ‘기도의 모범’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순례하겠다고 맘먹었다.

슬라브코 신부의 삶이 인상적이었다. 당초 성모님 발현을 조사하는 담당자로 파견되었다가 성지를 가꾸는 소명을 살았다. 발현은 공산주의 정권 시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이후 보스니아로 독립하자 내전이 발발하였다.



돌산으로 둘러싸인 지극히 가난한 마을에서 그는 어떤 결심을 다졌을까? 아외 제대 위 백 명은 되어 보이는 사제들을 보았을까? 4-5천 명의 신자들이 아외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를 바치는 것은 보았을까? 아닐 것이다.

그는 매일 아침 십자가산을 오르며 십자가의 길을 바쳤다고 들었다. 죽음도 십자가산에서 맞았다 한다. 마음을 다지고 다지는 투쟁 같은 매일을 보냈을 그를 생각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던 사람, 슬라브코 신부. 그는 이곳이 언젠가 순례객으로 가득 차 '기도의 학교'라 불리기를 바랐다. 그는 메주고리에 '성모님 메시지'가 세상 평화에 도움이 되길 바랐으리라.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것이다. 이것저것 상상하며 무서워하고, 포기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지 말자 하며 더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는 방향으로 나갔겠다. 나중은 하느님의 것이다. 슬라브코 신부님을 기억하겠다.



허정열 아델라이데 :

작년에 처음 성지순례를 갔다. 많은 은혜를 받았다. 메주고리에도 꼭 오고 싶어 남편을 설득했다. "내 인생의 희년은 올해가 마지막일 것이다. 내가 80살 이상 살 것 같지 않아. 꼭 가야겠어."

작년에는 하루에 한 번씩 보따리를 싸다. 매일 호텔을 옮기고 버스도 많이 탔다. 이번 순례는 한 호텔에 계속 머물길래, 너무나 편안한 여행인 줄 알았다. 가벼운 마음, 아무 준비 없이 왔다. 첫날부터 저희를 굴리셨다. 둘째 날, (성모 발현산) 돌산 올라갈 때도 괜찮았다. 셋째 날 십자가산 올라가며 14처를 바칠 때 위로를 많이 받았고 느끼는 것도 많았다. 하지만 내려올 때는, 이것을 알았으면 왔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 그 다음 날 평지를 걸었다. '어제 그 산을 다녀왔다고 평지를 걷는 게 이렇게 고맙구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다 감사. 감사가 절로 나오기 시작했다.

체나콜로 공동체에서 두 명의 형제 이야기를 들었다. 두 번째 형제 이야기를 들으며, '말이 안 통해도 나에게 큰 감동을 주는구나.' 했다. 그는 공동체에서 너무나 사랑을 느끼며 지내고 있었다. 나는 내 가정 공동체에서 그런 편안함을 주는 엄마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미안하고 반성이 되었다. 거기서 말도 안 통하는 말을 들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울면서 치유가 좀 되

더라.

오늘 마지막 치유의 기도 때 한국말 통역이 있었다. 그간 있었던 두 번의 치유 기도에서는 영어 통역이었다. (한국어로 듣자니) 특별한 말이 있는 게 아니었다. 평상시 우리가 쓰는 일상의 언어였다. 너무나 귀에 쿡쿡 들어왔다. 큰 치유를 받았다. 스케줄도 제대로 모르고 '기도와 회개뿐이라' 하며 왔다.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 싶었다. 하루에 20단씩 묵주기도를 했다. 하면 할수록 기도의 맛을 이제 알겠다 싶다. 묵주기도를 하면서 20단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도 회개했다. 회개할 일이 참 많더라.

이번 순례도 역시 은혜와 은총을 받았다. 알버트 형제님이 사전 모임에서, 이번 순례는 성모님이 초대해야만 올 수 있는 자리라 했다. 그분 초대에 응해, 이 자리에 있어 기쁘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두바이 공동체와 헤어질 시간이 하루하루 다가온다. 순례의 일주일일 큰 기쁨의 시간이었다. 앞으로 (두바이) 모든 하루가 너무나 소중할 것이다. 내년엔 어디 갈지 모르지만, 성지순례 간다 하면, 열 일을 제치고 따라나서고 싶다. 알버트 형제님도 뵙고 싶고, 신부님과 함께 또 순례하고 싶다.

서승희 헬레나 :

처음 성지순례 왔다. 사실 저도 못 올 줄 알았다. 올 환경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무조건 밀어붙였다. 비행기표 먼저 샀다. 대녀들이 성지순례로 이태리를 갔을 때 너무 좋았다고, 이스라엘 갔는데 너무 감동이었다고 많이 들었다. 그래서 무조건 질렀다. 그동안 마음속에 약간 힘든 점이 있었다. 이곳에서 많이 위로 받고, 성모님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다.

형제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사실 힘들었다. 그렇지만 산에 올라가 성모님을 뵈는데, '잘 왔다!' 이러시는 것 같았다.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 같았다. 말가 언니 덕분에 두 번째 산은 못 올라갔다. 하지만 글라라 자매님과 나눔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깊이 경험했다.

하루하루 지나며 더 익숙해지고 더 일상이 되어 성지 프로그램에 꼭 젖어들었다. 오늘 (한국어)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렇게 좋은 기도문이었구나 새삼 느꼈다. 사랑합니다.





2025년 '희년' 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Franciscus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번역)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현존 50주년 준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께서 이집트 종살이하던 당신 백성을 부르시어,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나이다.(탈출 13,21)

참된 자유를 찾아 광야를 걸었던 2000년 전 당신 백성처럼
이곳 광야에서 평화의 사도인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현존 50주년을 향해 순례하는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를 굽어살피시어,

말씀과 성체 안에서 당신을 만나고,
이웃 안에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 중에
당신의 모친 마리아의 보호를 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서른 배, 예순 배, 백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침내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뵈옵는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아라비아의 성모 마리아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묵주 성월 기도



성모 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평화 의 기도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소금 한 꼬집



홀로 그리스도 앞에 찾아온 사마리아인처럼
당연함이 아닌 감사함으로
하느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간 생활성서 '소금항아리'에서50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बैं킹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ARAK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챗  최은정 셀레나 (055. 360. 0733)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 100% Handmade • 100% Fresh Fruits •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GULF KOREAN TIMES 걸프 코리아 타임즈 • 중동 대표 한인 교민 신문 •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비즈니스 홍보 & 마케팅 기회 제공 • 외국 커뮤니티와의 협력, 유대 기회 정미숙 라파엘라 (광고 문의) (+971) 50 461 3991 /  : @gktmedia
---	--	--